

<2018년 11월 18일 주일말씀>

더 늦기 전에 행하여라

본 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 <때>가 되면 봄이 오듯이, 지금은 성경에서 말한 ‘10일간의 환난 기간’ 이 끝나고 ‘부활의 때, 황금기’ 를 맞이하였다. 이때는 성경 말씀대로 충성한 자들, 주를 사랑한 자들, 믿고 따른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는 때>다.
2. <부활의 때>는 ‘황금기’ 다.
3. 나비가 애벌레에서 부활을 하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로 그때부터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게 된다. 이같이 우리도 부활을 했으니 뛰고 달려야 한다. <치타>가 땅에서 날듯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듯이, 주와 함께 뛰고 날아야 한다.

4. 이제는 해 주는 밥만 먹지 말고, 자기가 해 먹어야 된다.
5. <자기 때>다. 이때는 ‘하나님의 때’ 와 같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6. <자기 때>가 왔는데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때’를 놓치는 것과 같다. 고로 자기가 하나님의 육이 되고, 주의 육이 되어 행해 드러야 된다.
7. 자기 때가 왔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늘의 뜬구름처럼 사라져 버린다.
8. <역사>에도 ‘짜’ 이 있다. 곧, <역사>에는 ‘동참’ 이다. ‘참여’ 다.
9. <역사>는 ‘동참하는 자의 것’ 이다. <동참하는 자>가 ‘주인’ 이 된다.
10.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아라.
11. 지난날을 잊지 말아라. 지금도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12. <머리>를 따라 ‘몸’ 이 간다. 항상 ‘머리’ 가 중심이다. 그런데 모르면, 무지 속에서 상극하게 된다.
13. 몰라서 무지 속에서 상극하면, <황금기>는 ‘철이나 동 같은

역사' 로 끝난다.

14. 지금은 과거에 그토록 기다리던 때다. <주를 만난 때>다. <주>도 부활하시고, <따르는 자들>도 부활한 '황금기' 다.

15. 치타가 날듯, 독수리가 날 듯, 날아 보고 뛰어 봐야 <부활>을 실감하고, '황금의 때' 를 보낼 수 있다.

16. 이때, <지난 10년 동안 못 한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할 것>도 해야 된다. -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될 때다.

17. 속히 행하여라. 뛰어라. 날아라. <성령의 역사>다. <말씀의 역사>다. <주님의 역사>다.

18. 더 늦기 전에 행하여라.

19. 더 늦기 전에 뛰어라.

20. 더 늦기 전에 날아라.

21.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

22. <이 시대>로 본다면,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사탄의 주관을 받

는 자들로 인해 고난을 받은 일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1일>을 ‘한 달’로 확대하여 10달 동안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나왔다. 마치 <10달>이 ‘10년’이 되는 듯한 환난과 어려움을 받았다.

23. <따르는 자들>도 그때는 선생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혔을 때다.<환난기>이기 때문이다. 고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성경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

24. <환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늘 챙겨 주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셨다.

2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서 시대를 이끌어 왔는지 깨달아라. 지난날 어떻게 너희를 도왔는지 깨달아라.”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준 자>는 아는데, <받은 자>는 잘 잊어버린다. 그렇게도 받길 원하고 몸부림쳐 행해서 그것을 쫓지만, 받아 놓고도 그때뿐이다. 세월이 가면 점점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모른다.” 하셨다.

26.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지난날 어떻게 해 주셨는지 그 사연을 잊어서는 안 된다.

27. <성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8. <성전>은 ‘하나님의 몸, 주의 몸’이다. 고로 <주>를 뺏기면, ‘성전’도 뺏긴다.
29.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전을 땅에 두리라.” 하셨는데 신약 때는 이 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을 뺏기니, 그 몸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뺏기게 되었다. 결국 회교 전당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못 뺏고 있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뺏어 와야 다시 그 성전을 뺏게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
30. <이 시대>는 ‘주’를 뺏기지 않았다. 고로 땅에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었다. 곧 <시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궁전>이요, <시대 에덴동산>이다. 최고의 고통 기간, 고난 기간, 환난의 때에 ‘주’를 뺏기지 않았기에 섭리사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31.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그 사연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지난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
32. 잊으면, 지난날 함께한 것이 죽는다.
33. 잊으면, 은혜가 죽는다.
34. 잊으면, 사랑이 죽는다.

35. 잊으면, 시험에 든다.

36. <더 늦기 전에 행하라는 말씀>은 “나이가 어린 자나, 많은 자나 ‘자기 때’가 있으니,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늦으면 못한다.” 함이다.

37. <젊을 때> 빨리해야 된다. <나이가 많은 자>도 앞날을 볼 때 지금이 ‘젊을 때’다.

38. <젊은 날에 해야 될 일>은 ‘젊을 때’ 해야 된다. 나중에는 주관권이 바뀌어서 안 된다. 이는 마치 <봄에 할 일>을 ‘가을’에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39. <자기 때>가 지나면 못 한다. 고로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40. <자기>가 ‘하나님’과 일체 됐으면, <자기 때가 왔을 때>는 곧 ‘하나님의 때’도 온 것이다. 고로 <자기 때>로만 보면 안 된다.

41. 하늘에 매여 사는 자들이라면, <하늘의 때>와 <자기 때>가 온 것을 알고 뛰고 달려야 된다.

42. 지금은 <부활 역사의 때>다. 살아났으니, 지금은 ‘살아가는 때’다.

43. 살아날 때는 힘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살아났으면 힘이

나서 외치고 뛰고 달려야 된다.

44. 지금은 ‘황금기’ 이기 때문에 살아나서 하는 대로 된다. 고로 저마다 각 교회에서, 부서에서, 혹은 개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 <시대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해 나가야 된다.
45. 해 주는 밥만 먹지 말고, 저마다 만들어서 먹어라. 기획해 주는 것만 하지 말고, 자꾸 구상하고 만들어서 교회가 꾸민 잔칫집이 되도록 해라.
46.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함께하신다. 그러니 ‘홍분의 도가니, 역사의 도가니’가 된다.
47. 부활됐으니, 그동안 못 했던 일도 하고, 하려고 마음먹은 일도 해야 된다.
48. 자꾸 하면 5배, 10배 더 하게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5배, 10배 더 사는 격이 된다.
49. 젊을 때, 총명할 때 빨리 뛰고 달려서 빛이 나게 해야 된다.
50. 무한히 뛰고, 달리고, 거뒀들여야 한다.
51. 뛰고 달리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안 뛰는 자>는 할 일이 없다고 한다. 안 하니, 할 일이 없는 것이다.

52. 지금은 <잠자는 자> 없이 일어나 빛을 받으며 가야 할 시대다.
53. 자꾸 해야 된다.
54. 지금 굶주려도, 허리끈을 졸라매도, <지금 할 것>은 지금 해야 된다.
55.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월명동 소나무>같이 돼야 한다.
56. 이제는 ‘환난의 때’ 도, ‘어려움을 당하는 때’ 도 지나갔다. 한번 지나가면, 그때 해당되는 환난은 다시 안 온다. 다른 환난이 올지라도, 이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면 된다. ‘이 환난이 끝나면, 큰 축복이다.’ 하면서 해야 된다.
57. 선생도 시대 십자가를 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할 일은 여기서 해야 한다.’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더 뛰고 달렸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 환난 때에 하나님은 ‘성전 축복’ 을 주신 것이다.
58. 가르쳐 줬으니, 더 늙어버리기 전에 어서 행하여라. 고난과 두려움, 어려움의 터널은 지나왔다. 환난을 받았어도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을 받았다. 무엇으로? 우리가 휴거를 이루고 ‘신부’ 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을 받았으니,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59. <생명의 면류관>이란 ‘영과 육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긴 것’이다.
60. <휴거된 자들,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쓰고 다닌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 자>는 영과 육이 사망권에 묻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
61.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니, 더 늦기 전에 죽도록 충성하며 행해야 된다.
62. 선생은 <환난의 강>을 뛰어넘고 날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했기에 <천 년 동안 할 것>을 다 해 놓았다.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서 하면, 어려움도 고통도 다 해결된다.
63. 늦기 전에 미련없이 10배, 100배 행하여라.
64. 차려주는 것만 먹지 말고 교회에서도 생명들을 인도하는 이벤트를 부지런히 열어야 된다. 아름다운 교회를 얻었으니, 아름다운 사람들을 부지런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워야 된다.
65. 이때를 놓치지 말고, 늦기 전에 해라. 늦으면, 사탄이 잡아 가서 찾을 수 없다. 부활 됐으니,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라.